

2023. 3. 24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

보건의료정책과장	이준형	02-2133-7505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환경보건팀장	김수정	02-2133-7676
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담당자	김섯별	02-2133-7884
-----	-----	--------------

'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' 국내 최초 세계보건기구(WHO) 등재

-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(WHO) 등재되어 중독관리 측면에서 국제적인 위상 높여
-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독성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 주목표
- 시, 독성물질의 명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권 확보 노력 기울일 것

- 서울시가 운영하는 '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'가 세계보건기구(WHO)에 등재되어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기준에 걸맞은 중독관리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.
 - 세계보건기구(World Health Organization)는 독성물질에 의한 건강 위해 대응과 예방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에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립·운영을 권장한다. 현재 95개국 348개소가 세계보건기구(WHO) 중독관리센터로 등재되어 있다.
 - 세계보건기구(WHO) 중독관리센터는 국제보건규정(2005) 중 화학물질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위기상황 감지 및 대응 능력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, 2023년 1월 기준 세계보건기구(WHO) 회원국의 47%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

-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OECD 38개 회원국 중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와 더불어 중독관리센터가 없는 국가로 남아있었으나, 이번 ‘서울시 독성 물질 중독관리센터’의 등재를 계기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.
- 2021년 8월 설립된 센터는 누리집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, 중독상담콜센터 (헬프콜 1855-2221) 오픈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.
 -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환경 속 중독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치료·상담 경로가 부재함에 따라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설치하였다.
- 센터는 지난 1년간 정부 및 국내외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유해물질 정보를 Open API 연동기술을 통해 일원화하여 화학물질, 의약품, 농약 등 현재 193,686건의 독성물질 DB를 구축하였으며, DB-CTI 연계 기반의 중독상담 콜센터 시스템을 완료하고 중독질환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.
 - '22년 12월 기준 중독상담 콜센터 이용자 및 예방정보 구독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는 총 78,481명으로 집계되었다.
 - 또한,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등에 중독질환 예방교구 10,820부를 무료 배포하고, 생애주기별 맞춤형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388명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중독질환 예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- 특히 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(WHO)에 등재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, 이제까지 기반조성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.
 - 서울시 우선관리 대상 환경유해물질(12종) 및 서울 지하철 주사용 생활화학제품(17개 제품)에 대한 독성정보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, 생활밀착형 사업장 대상 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도 진행하며, 식품 내 주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인체 독성정보 DB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.

-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,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.
- 세계보건기구(WHO)는 중독관리센터의 필수 기능으로 ▲독성물질 및 응급 처치 정보제공 ▲독성물질 감시조사 활동 ▲중독질환 예방교육 ▲중독질환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, 중독질환 정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응급의료시설이 확보된 병원 시설 내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.
- ‘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’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응급의료진 및 보건학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 중으로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제시한 필수·권장 기능을 충족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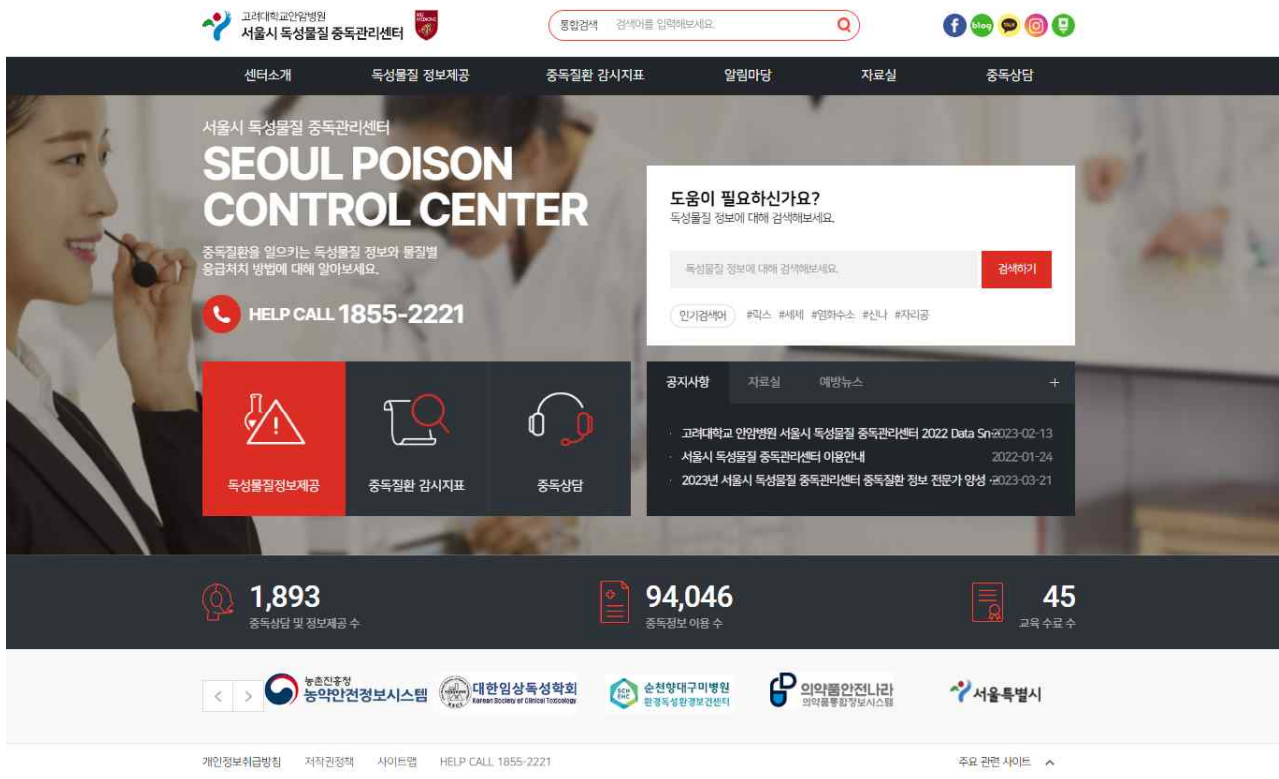
□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민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누리집 (<https://seoulppc.or.kr/>), 중독상담 콜센터(헬프콜 1855-2221) 및 사회관계망(카카오톡 등)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- ▲가정, 사업장 등 노출 사고 현장 중심의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▲전문가 수준의 독성물질 유해성·중상·치료방법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인 및 119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바른 임상적 의사결정도 지원한다.
-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응급실 내원과 119구급서비스 이용 감소를 통해 서울시 전역의 안전 공백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.

□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서울시 독성물질관리센터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붙임〉 센터 홈페이지 및 세계보건기구(WHO) 독극물센터 지도 1부. 끝.

<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>



< Map of WHO Member States poisons centres >

